

佛 대선 결선 여론조사 마크롱 64%·르펜 38%

2%P차 1·2위로 결선 진출

내달 7일 투표...누가 되도 파란

5공 사상 첫 '이단아' 맞대결

프랑스 대선이 중도신당 '앙 마르슈'('전진'이라는 뜻)의 에마누엘 마크롱 후보와 극우정당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마린 르펜 후보간 대결로 압축됐다.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내무부가 집계한 1차 투표 공식 결과에 따르면 개표가 98% 진행된 상황에서 마크롱이 23.82%, 르펜이 21.58%를 득표, 각각 1, 2위로 사실상 결선진출을 확정지었다.

공화당의 프랑수아 피용은 19.9%, 급진좌파 진영 '프랑스 앵슈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라는 뜻)의 장뤼크 멜랑송은 19.49%에 그쳐 결선 진출이 좌절됐다.

이는 전날 발표된 1차 투표 출구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출구조사에서는 마크롱이 23.7~24%의 득표율로 1위로, 르펜이 22%로 2위로 결선에 오르는 것으로 전망됐다.

프랑스 대선에서 중도 좌·우진영을 대표하는 기성 양대 정당(현재는 사회당과 공화당)이 결선투표 진출자를 내지 못한 것은 결선투표를 도입한 제5공화국 헌법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계 변방의 '이단아'들에게 주역 자리를 내준 사회당과 공화당은 6월 총선에서 1당과 2당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난제를 안게 됐다. 마크롱과 르펜이 격돌하는 대선 결선투표는 오는 5월 7일 진행된다.

결선에서는 마크롱이 르펜에게 압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론조사 기관 '인소스 소프라 스테리아'와 '해리스 인터랙티브'가 전날 저녁 각각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오늘 당장 결선이 실시될 경우 마



39세 정치 신예 에마누엘 마크롱 (신당 '앙 마르슈' 설립) / 프랑스판 트럼프인 마린 르펜 (48·국민전선)

중도	정치 성향	극우
찬성	유럽연합	탈퇴(프렉시트 주장)
자유무역	대외 경제	보호무역
문화적 다원주의	외국인 정책	프랑스 우선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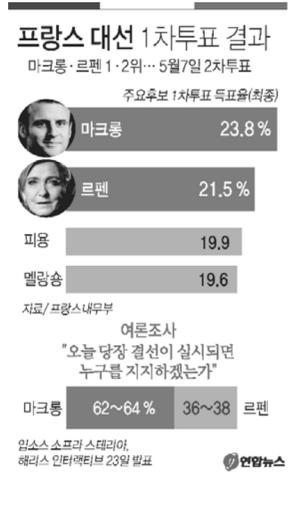
크롱을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2~64%로, 르펜(36~38%)을 압도했다. 마크롱과 르펜은 향후 2주간 각각 유럽연합 찬성과 탈퇴, 개방과 폐쇄,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문화적 다원주의와 프랑스 우선주의 등의 이슈를 놓고 결선에서 마지막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결선진출에 실패한 대선 후보들과 주요 정치인들은 잇따라 결선에서 마크롱을 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극우세력의 집권만

은 막아야 한다는 뜻에서다.

피용은 출구조사 직후 패배를 인정한 뒤 마크롱을 지지하겠다고 밝혔고, 집권 사회당의 대선후보 브누아 아몽 역시 마크롱 지지를 선언했다.

이밖에 작년 11월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피용에게 패한 알랭 쥐페 전 총리와 현 베르나르 카즈노브 총리 등 거대 양당인 공화·사회당과 현 정부 주요 인사들도 속속 마크롱 지지대열에 합류했다.



마크롱은 출구조사 결과 발표 후 지지자 집회에 "프랑스 국민이 변화에 대한 열망을 표출했다. 우리는 프랑스 정치사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1년 만에 프랑스 정치의 얼굴을 바꿨다"면서 "국가주의자들의 위협에 맞서 애국자들의 대통령이 되겠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프랑스와 유럽의 희망의 목소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르펜도 프랑스 북부 에냉보몽 지역의 지지자 집회에 참석해 "이번 투표 결과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면서 "프랑스 국민을 거만한 엘리트로부터 해방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만적인 세계화로부터 프랑스를 지켜내야 한다"면서 현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의 유산을 물려받은 마크롱을 집권하게 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등 돌린 북한·중국...연기일까 진심일까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본격화되면서 중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대치하기 시작했다.

25일 북한 인민군 장군일을 앞두고 6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과 중국의 관련 매체들이 서로를 비난하는 대리전에 나서면서 '혈맹' 관계는 간 곳이 없다.

중국 환구시보와 조선 중앙통신의 대리전은 북한과 중국 관계가 본격적으로 급이 가는 '사극'일 가능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이때 중국은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이 북핵 해결사로 나서면서 북한을 향해 원유공급 중단, 또는 축소, 미국 선제타격 시 군사대응 불개입을 시사하며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전략 폭격기나 특수부대 등을 동원해 전투준비 태세에 들어갔다거나 북중 접경지역에 전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외신보도 내용도 잇따르고 있다.

북한을 상대로 '제재와 대화' 딜레마에 처해있던 중국은 최근 급격히 고강도 대북 제재와 압박에 무게를 싣고 있다. 중국 당국과 관영 언론에서는 그동안 북한의 생명줄로 여겨졌던 원유공급 중단을 거듭 거론하기 시작하는데 이어 심지어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 등 일반 여론에서는 '북한 포기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대북관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국 외교부와 환구시보의 논평 표현이나 위가 높아진 것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자들과 군 출신 인사가 발표하는 의견도

대북 제재로 방향을 바꾸는 바로미터 작용을 한다. 일부 학자와 중국 군내에서도 북한을 이미 '가상의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고 있다.

중국 공산당 중앙당과 국제전략연구소 장젠구이 교수는 최근 일본의 경제지 닛케이 아시아리뷰에 "중국의 원유공급 중단은 북한의 추가 핵탄두 실험이 있을 시 취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중국의 마지막 카드로 여겨지던 '원유 공급'을 꺼내든 것은 그만큼 중국의 북핵 불용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미국과 중국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정상 회담과 전화통화 외에도 양측 고위층의 긴밀한 소통 신호를 보내며 북핵 문제에 대

한 밀월 관계를 과시하고 있다.

중국은 최근 베이징~평양간 항공노선을 폐쇄하고 북한으로부터의 석탄 수출과 회귀 금수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다. 이 같은 미중 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에 북한은 불편한 심기가 역력하다. 최근엔 이례적으로 중국을 겨냥한 원색적인 비난 논평까지 발표했다.

북한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21일 '남의 집단에 춤을 추기가 그리도 좋은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중국이 미국에 협조에 북한 압박을 지속하면 북중관계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중국의 대북 기조가 전면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이 중국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지만 동북아를 시발로 하는 대외전략 전체를 바꾸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는지는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박종구의 중국인물 이야기

《초당대 총장》

수양제의 명참모 양소

양소(楊素, ?~606)는 수나라 황능화을 출신으로 자는 처도다. 문제 양견을 도와 수나라 건국과 천하통일에 크게 기여했다. 후일 문제가 황태자 양용을 폐하고 양광을 태자로 봉하도록 계책을 꾸렸다. 그러나 양광이 2대 황제가 된 후에는 경원시되었다.

그는 어려서부터 배우는 것을 즐겼고 문장이 뛰어났다. 인물과 기상이 장대해 영웅호걸의 풍모를 가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주 정권에 출사를 받으려던 양소에게 양광이 "폐하에 복제를 명하는데 공을 세웠다. 이 공으로 거기대장군이 되었다. 문제가 수나라를 장강한 후 강남의 진나라를 토벌하는데 진왕 양광을 보좌했다. 강남의 반수(叛亂) 세력을 진압하는데 공을 세워 월공공에 봉해졌고 재

많이 다치거나 죽었다. 황제가 이를 못마땅해 한다는 소식을 듣자 독고황후를 찾아가 다음과 같이 변명을 늘어놓았다. "황제는 모름지기 황제의 기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제가 지은 공을 사치스럽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황후가 그를 적극 변호해 문제의 신임을 다시 확보할 수 있었다.

문제가 황후 몰래 위치시 제간의 여자를 후궁으로 총애하자 황후가 질투심으로 그녀를 죽여버렸다. 이에 상심한 황제가 궁궐을 벗어나자 고경과 양소가 뒤따랐다. 고경이 "폐하, 어찌 일개 아녀자에 대한 불만으로 천하 대사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황제를 달래 환궁토록 하였다. 그는 나중에 황후에게 고경이 그녀를 일개 아녀자에 비교했다고 고자질했다. 이때부터 고경은 황후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다.

장남 양용을 폐하고 차남인 양광을 새로운 황태자로 옹립하는 작업이야말로 그의 최대 승부수였다. 그가 야망이 깊고 과업은 진나라를 멸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진을 칠 계획을 상소하였다. 천하통일이 된 후 농공행사에서 크게 보상을 받으려던 양소에게 양광이 필요했다. 그가 진을 공격한 3군 중 하나인 측익군(側翼軍)의 지휘권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의 강력한 방어 세력을 뛰어난 책략과 용맹으로 격파했고 고지혜와 왕국경이 이끄는 반수 세력도 계책을 세워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러한 공적으로 재상인 상서좌복야 고경 아래의 상서우복야 자리에 올랐다. 그는 문제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왕국경의 세력을 토벌하던 중 문제가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장안으로 불러올렸다. 그러나 지금 잔여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대세를 그릴 것을 우려해 끝까지 적을 추격하고자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문제는 이에 깊이 감동받아 가까이 그의 청을 가납했다. 문제가 수도에 인수공을 조성했다고 하자 자신을 공사 책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고경이 지은 대항성에 비금가는 대규모 황궁을 조성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지은 까닭에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도

배신으로 흥했지만 불안 속 생 마감

상 고경과 함께 조정 대사를 좌지우지했다. 상서우복야, 남언 등을 역임해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581년 수나라를 창건한 문제에게 가장 큰 과업은 진나라를 멸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진을 칠 계획을 상소하였다. 천하통일이 된 후 농공행사에서 크게 보상을 받으려던 양소에게 양광이 필요했다. 그가 진을 공격한 3군 중 하나인 측익군(側翼軍)의 지휘권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의 강력한 방어 세력을 뛰어난 책략과 용맹으로 격파했고 고지혜와 왕국경이 이끄는 반수 세력도 계책을 세워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러한 공적으로 재상인 상서좌복야 고경 아래의 상서우복야 자리에 올랐다. 그는 문제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왕국경의 세력을 토벌하던 중 문제가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장안으로 불러올렸다. 그러나 지금 잔여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대세를 그릴 것을 우려해 끝까지 적을 추격하고자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문제는 이에 깊이 감동받아 가까이 그의 청을 가납했다. 문제가 수도에 인수공을 조성했다고 하자 자신을 공사 책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고경이 지은 대항성에 비금가는 대규모 황궁을 조성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지은 까닭에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도

다. 장남 양용을 폐하고 차남인 양광을 새로운 황태자로 옹립하는 작업이야말로 그의 최대 승부수였다. 그가 야망이 깊고 과업은 진나라를 멸해 천하를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는 여러 차례 진을 칠 계획을 상소하였다. 천하통일이 된 후 농공행사에서 크게 보상을 받으려던 양소에게 양광이 필요했다. 그가 진을 공격한 3군 중 하나인 측익군(側翼軍)의 지휘권을 얻은 것도 이 때문이다. 강남의 강력한 방어 세력을 뛰어난 책략과 용맹으로 격파했고 고지혜와 왕국경이 이끄는 반수 세력도 계책을 세워 완전히 궤멸시켰다. 이러한 공적으로 재상인 상서좌복야 고경 아래의 상서우복야 자리에 올랐다. 그는 문제에게 끊임없이 자신의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왕국경의 세력을 토벌하던 중 문제가 그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장안으로 불러올렸다. 그러나 지금 잔여세력을 완전히 소탕하지 않으면 대세를 그릴 것을 우려해 끝까지 적을 추격하고자 한다는 상소문을 올렸다. 문제는 이에 깊이 감동받아 가까이 그의 청을 가납했다. 문제가 수도에 인수공을 조성했다고 하자 자신을 공사 책임자로 임명해달라고 청했다. 그는 고경이 지은 대항성에 비금가는 대규모 황궁을 조성했다. 그러나 너무 화려하게 지은 까닭에 비용이 많이 들고 사람들도

상가 건물 매매 경매 / 투자 전문

010-7384-7800 | 010-2699-5300

전남 영광군 전원주택 매매

전원주택 강력추천 ■ 광주에서 40분

- 토지 151평 건물 42평 (준공2년)
- 가장조용하고 아늑한 동네 내부깔끔 / 주차 완비
- 시세 1억5천만 매가 1억1천만(용2천)
- 주인 직매 (010-6670-9800)

동구 수기동 상가매매

20층 중 6층(45평)

- 천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완비/주차 완비
- 보 1천만~월 70만
- 시세 1억6천 매가 1억1천(용5천)
- 북구 중흥동 모아 A.P.T 15층 중 10층 (50평) 방 4개 욕실 2개 (내부 깔끔) 매가 2억3천
- 상무지구 상가매매 6층 (19평) 롯데마트앞, 상무나이트점 상무지구 중심가 / 수림오피스텔 매가 7천200만
- 서울 용산 청파2가 13평, 속대 1분, 속대입구역 3분 보 600만 월 60만 매가 1억3천만

평택 전문

토지 (경매, 건설개발) 하실분 모집

- 전원주택토지 투자자 모집
 - 송탄 터미널 5분
 - 총 1,700평
 - 전망 최고 / 전원주택 강력 추천!!
 - (시 세) - 평당 200만 (선착순) -> 평당 150만
- 개발 부지(271평) 코너자리
 - 송탄역 5분 - 송탄 터미널 1분
 - 위치최고 / 분양 최고
 - 매가 33억 개발시 순수익 50억!!
- 평택 초역세권
 - 송탄역 1분 (코너자리)
 - 위치 최고 분양 최고
 - 매가 12억 개발시 순수익 15억!!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경매물건추천

- 동구 금남로 5가 (8층중 4층 상가) 토 53평, 건 340평 롯데백화점 옆 공주 가정 큰평수, 가장 저렴한 가격 ▶감정가8억 → 최저가 1억8천
- 광산구 쌍암동 (무인텔) 토 415평, 건 577평 첨단지구 쌍암공원 1분, 총 물 28개 (월수익 3,000만 예상) 보 2억 월 1천만 (임대가능) ▶감정가 45억 → 최저가 25억
- 부안군 진서면 (속박시설) 토 302평, 건 286평 월수익 1,000만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3억9천8백
- 군산시 나운동 (사우나) 토 132평, 건 334평 대단위 아파트 인근 월수익 2,000만 !! ▶감정가 21억 → 최저가 5억1천
- 동구 금남로3가 (4층상가건물) 토 118평, 건 304평 금남로 4거리 1분 총정리 중실 상업권 ▶감정가 10억 → 최저가 7억4천

경매 무료교육

매주 월요일 10시 (주말반, 토요 운영)

※ 기초 교육 입학방법

▶경매 실전 전문반▶

경매 교육받으면서 실전주주로 할실분

★ 경매로 확실히 수익 내실분 ★ (특수경매, 개발, 시행, 토지건)

직원모집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정연오피스텔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담당) 010-2699-5300